

테마칼럼

생명과학 여성과 소비 교단일기 스토리텔링 파워



김신희

“권리 위에 잡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 다”라는 말은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에 링이 한 말이다. 누구나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땅히 누리야 할 권 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.

이 말은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간 사로 근무할 당시 소비자 보호법을 홍보 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문구이다.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소비자 보호법이 더 욱 강화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 자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.

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소비자들도 감소하였음은 물론이다. 법과 제도란 시 대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 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현명한 소비 자가 될 수 없다.

‘오픈 프라이스 제도’는 기존의 권장소 비자가격 제도와 달리 최종 판매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표기하는 가격 표시제도이다. 즉, 판매처에서 가격을 정

소비자의 알 권리 ‘오픈 프라이스 제도’

함으로써 유통업체 간 경쟁을 통해 가격 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 다. 우리나라는 1999년 처음으로 도입되 었고 2010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.

2011년 8월을 기준으로 보면 오픈 프 라이스 제도의 적용 대상 품목은 총 275 종이다. 가전제품 14개 품목을 비롯하여 의류 247개 품목, 기타용품 14개 품목이 다. 이 제도 시행 이후 가전제품의 경우는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하지만 시행 1년 만에 품목에서 제외된 것도 있다. 라면, 과자, 빙과류, 아이스크 림 등 4가지 품목은 가격 인하 효과가 미 비하다고 판단되어 오픈 프라이스 제도 품목에서 제외되었다. 미비하다고 하여도 지속적으로 시행함이 옳다고 생각한다.

정책 변화로 인해 가격이 오르지 않고 합리적인 권장소비자가격(희망소비자가 격)이 책정되도록 관계부처나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의 감시와 압력이 필요한 지극히 타당하다.

이 제도의 장점을 꼽자면 소매점에서

권장소비자가격에 대한 ‘할인’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상품이 열거 에 판매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브 랜드의 이미지 저하를 피할 수 있다.

판매자는 판매가를 저렴하게 설정함으 로써 소비자를 매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 다. 또한 다른 판매자보다 판매가를 조금 비싸게 설정하여 판매 마진을 올려 받는 것이 가능하다.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로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.

단점이라면 판매가격 표시에 권장소비 자가격에 대한 할인을 사용할 수 없기 때 문에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미 지를 줄 수 없다. 다른 생산자 간의 상품 비교가 어렵고, 소비자가 실제로 매장에 가지 않고서는 상품의 가격대를 알 수 없 다. 만일 판매자가 폭리를 취하는 경우라 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.

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소비자에게 다양 한 구매 선택권을 주었다는 긍정적인 평 가도 있지만, 시행 후 권장소비자가격 대 비 판매가격을 알 수 없고, 제품가격이 표 시되어 있지 않아서 혼란을 겪었으며, 실

제로 가격이 높아진 품목도 있다는 평가 가 나오고 있다.

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본래의 목적은 판매에 대한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제도이다.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의 인지도를 높이고, 사회 각 계층의 소비 자들이 지니는 다양한 수요에 대한 욕구 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격 정보제공이 요 청된다.

관계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가 격압박을 제재하고 판매처가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가격표시에 철저해야 한다고 본다.

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과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, 우리 사회는 신뢰가 구축될 것 이다.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관심과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.

(광주 YWCA사무총장)

※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시 설

정부, 호남 실상 알고도 차별·소외인가

호남지역의 소득 구조와 규모가 전국 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. 광 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자 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, 전북· 제주지역 법인의 평균 소득은 1억3000 만~1억6000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. 이 는 전국 평균 법인소득의 4억6000만 원 의 3분의 1, 서울지역 7억2000만 원의 5 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.

개인 사업자 소득의 경우 광주가 전 국 평균의 80%, 서울의 57%로 전국 최 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다. 호남은 근로 자 1인당 평균 급여에서도 전국 평균의 90%에 머물렀다. 호남지역의 기업, 자 영업자, 근로자 모두 전국에서 가장 영 세하고 못살고 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.

호남의 낙후와 가난은 물론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. 하지만, 호남의 이런 절망 적인 현실이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고 착화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.

군사정권 아래에서 수십 년 동안 자행 된 호남 차별은 지역 낙후-가난이라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했다. 심지어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하에서도 역사별로 시 달리면서 낙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. 실상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호 남 차별은 군사정권에 버금 간다.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. 호남의 가난은 역대 정권의 소위가 가장 큰 요인인 것이다.

이제, 더 이상 정권의 전략적 이유 때 문에 특정지역이 차별받는 일이 되풀이 되어 안 된다. 이는 국가발전의 가로막 고 국민통합을 해칠 뿐이다.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양극화의 근본 원 인도 지역 차별에서 찾을 수 있다. 우리 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.

정부는 호남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그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. 가난으로 고통받는 호남을 방치 해선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.

의회에 막말해 시장 욕보인 간부 공무원들

광주시 간부 공무원이 시의회 시정 질의 과정에서 저급한 답변을 쏟아내 결국 강운태 시장이 공식 사과하는 촌 극을 빚었다. 지난 1월 홍진태 행정자치 국장이 홍인화 의원에게 막말과 협박성 발언으로 시의회에서 공식 사과한 지 두 번째다.

선교조 환경생태국장은 지난 27일 열 린 임시회에서 “답변을 듣는 것이 불쾌 하면 질문을 하지 말라 달라” “의원이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간단하게 대답하겠나” “환경오염 문제는 염려의 경계를 뛰어넘어서도 될 것이다”는 등 의 불성실 답변으로 일관했다.

시의원들은 신 국장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삼고 강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 며 28일 본 회의를 연기하는 등 파장을 빚었다. 이에, 강 시장은 “시장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다소 매프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”며 “시장으로서 엄히 주 의의를 찾고, 국장 본인도 답변이나 내용 이 적절치 못한데 대해 깊이 자성하고

있다”고 유감을 밝혀 신 국장의 실수를 인정했다.

신 국장의 태도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. 수십년 간 공직생활을 해왔고, 의회와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만한 고위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.

시민들의 입장에서 부하 직원의 잘못을 대신해 시장이 의회에 사과하는 이런 촌극에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. 우리는 광주시 공무원들의 의회에 대 한 경시 발언을 누차 지적해 왔다. 또한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 부재에 따른 부작용도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. 그럼에도 환경투기는 계속되고 있다. 지난해 7월 민선 5기가 시작된 이후 다섯 차례나 공식적인 갈등을 빚었다. 광주의 경제가 어렵고,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상생으로 가도 힘겨운 판에 감정을 키우 는 것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다. 강 시장은 취임 일성에서 밝힌 ‘소통’ 에 대해 스스로 상기할 필요가 있다.

중 고 칼럼

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



김재영

두 개의 화분에 똑같은 흙과 비료를 섞어 넣 은 다음 23개씩 씨앗을 심었다. 그런 다음 두 화분에 같은 온실 속에 두고 씨앗들이 발 아되는 동안 똑같은 태양열을 받게 하고 실 내온도도 똑 같게 유지시켜주었다.

그러나 그 실험에서 한 가지 방법만은 다 르게 적용했다. 그것은 하루에 세 번씩 첫 번째 화분 주변 을 맴돌면서 그 화분의 씨앗들을 향해 “너는 아무리 싸을 티우려 해도 열매를 못 맺을 거 다. 너는 절대로 흙을 뚫고 나와 씨를 틔울 수 없어. 흙이 씩이 난다 해도 곧 말라 죽을 거 야”라는 말로 학대했고 다른 화분에 정 반대 로 “그래 내가 정성껏 심은 씨앗들이 다 잘 자 랐다. 너도 마찬가지로. 너는 분명히 아름다운 식물로 자라나서 예쁜 꽃을 피우게 될 거야. 그날이 기다리는구나!” 라고 격려했다.

드디어 3주가 지나 이 두 화분의 사진이 나란히 유명한 주간잡지인 타임지에 실렸다. 부정적인 말로 학대를 받았던 화분은 몇 개의 작은 싹만 나왔을 뿐 이 이상은 더 크 게 성장하지 못했고 격려의 말을 듣고 자란

화분에는 길가에 자란 여러 가지 풀 가에서 꽃들이 활짝 피었다고 한다.

시골의 작은 성당의 신부를 돕고 있는 소 년이 성찬용 포도주를 나르다가 잔을 떨어 뜨렸다. 너는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말라고 책망을 받았던 소년은 그 뒤로 성당을 나오 지 않았고 무신론자가 되었다가, 공산국가 의 독재 대통령이 되었다. 그가 바로 유고슬 로비아의 티토 대통령이였다.

똑같이 성당에서 신부를 돕던 한 소년이 역 시 성찬용 포도주를 떨어뜨리자 신부는 이해 와 사랑으로 “음 나도 어렸을 때 그랬다. 너는 앞으로 참 좋은 신부가 되겠다”라고 말했다. 그의 말대로 플톤톤 주교가 되었다.

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다. “사람은 누구나 그가 하는 말에 의해서 그 자신을 비판한다. 말은 남 앞에 자기 초상을 그려 놓은 셈이다.”

말은 곧 인격이요, 삶이요, 사상이요, 운 명이라는 말이다. 데이가 쓴 ‘세 황금문’이라는 글이 있다.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세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한다.

기고

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



정화면

다는 그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목 이 맨다.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이 선수는 400m 경기에서 비장애인 선수와 당당히 대 결해 준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올렸다. 장 애를 극복하고 역경을 뛰어넘은 한 편의 휴 먼드라마가 아닐 수 없다.

스스로 장애를 뛰어넘는 피나는 노력, 그 리고 무엇보다 세상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자신의 꿈을 무럭무럭 키워나간 것이 오늘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됐다는 그의 말이 매우 인상 깊다.

우리나라에서도 피스토리우스 선수처럼 역경을 딛고 성공한 장애인들이 많다. 사법고 시 합격자 최영씨, KBS 첫 장애인 앵커 이 창훈씨 등이 바로 그들이다. 이들은 세상과 의 소통을 끊임없이 이어간 점이 성공 비결 이라고 입을 모았다. 요즘에는 불편한 몸이 세상과 소통하는

데, 더 이상 ‘장애’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. 정부 또는 민간단체에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돕는 제도나 프로그램이 많 기 때문이다.

오는 10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될 국민연금 공단의 ‘장애인 활동지원제도’가 대표적인 예 다. 만 6세부터 64세까지의 1급 중증장애인 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는 올해 약 5만 명의 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그들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돕게 된다.

다시 말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해 자신 은 물론 가족의 경제부담을 대폭 줄여줌으 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. 이번 제도의 특징은 다양한 급여지원과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이다.

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이외에도 방문간 호·방문목욕 등 다양한 급여지원이 이뤄질

젊은이들 맹목적인 외제 선호 안타깝다

며칠 전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오토바이 를 사달라고 했다. 갈어서 통학하기에는 멀 고, 버스로 다니기에는 애매하다며 그런 대 안을 내놓았다.

아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사러 갔더니 친 구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며 일본 제품을 고 집했다. 국산도 저렴하고 튼튼한 제품이 많 은데 왜 일본 제품을 고집하느냐고 아들을 타일었다. 결국, 일본 제품을 사주지 않았

다.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 아들이 사려고 했던 제품은 일본에서 폐차 직전 오토바이를 들여와 부 품만 떼어낸 채 새로 조립해서 파는 것이었기 때문이다.

예전에는 우리 기술력이 일본에 비해 상 당부분 뒤지기도 했다. 하지만, 이제는 컴퓨터, 자동차, 가전제품 등 오히려 우리나라

제품이 다른 나라 제품보다 더 좋은 품질을 자랑한다.

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오토바이를 중고 부품으로 만든 일 본 제품을 왜 선호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 았다.

이런 현상은 외제, 일본 제품에 대한 맹목 적인 동경심과 빗나간 과시욕 때문에 빚어 지는 현상이다. 특히 일부 수입업자들은 이 를 악용하기도 한다.

젊은이들이 맹목적인 동경과 과시욕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. ▲나윤성·광주시 남구 봉선2동

◇독자투고 환영합니다

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.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, 생활의 경험 등 어 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, 만화, 만평 도 환영합니다. 채택된 원고는 고 료를 지급합니다.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, 주소,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. 501-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-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-2200-628 팩스 062-222-4918 e메일 opinion@kwangju.co.kr

**無 等 鼓**

싱가포르를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르는 곳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이다. 시내 중심가인 금융지구의 하늘을 치를 듯한 마천루를 마주보고 서 있는 이 호 텔은 지난해 6월 개장 이후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됐다. 이곳에는 2561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은 물론 카 지노, 컨벤션센터, 쇼핑몰, 공연장까지 모두 갖춰져 있다.

세계적 복합리조트 업체인 미국의 샌즈그 룽 소유로 우리나라의 쌍용건설이 시공해 화 제가 된 곳이기도 하 다. ‘U’자 모양의 독특한 외관을 만들기위해 피사의 사탑(5.5도)에 10배 가까운 52도의 기울기로 지은데다 지 상 200m 높이의 옥상 에 거대한 배 모양의 스카이 파크를 올 려놓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.

그러나 정작 기자의 관심을 끈 것은 호텔 입구에 세워진 ‘Welcome to Asia’s Dining Destination’이란 문구였다. 지 난 25일 F1 대회인 싱가포르 그랑프리 취재를 위해 사킷에 들어가다 이 문구 를 발견했다. ‘아시아의 최종 목적지에 온 것을 환영한다’는 이 문구에서 6년전 마카오에서 만났던 샌즈그룹 셸던 아벨 슨 회장이 떠올랐기 때문이다.

아벨스 회장은 당시 마카오에 카지노 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짓고 있었는데 한국 언론을 초청해 투어 겸 인터뷰를 가졌다. 그는 투자의 조건으로 ‘Destination’을 강조했다.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 로는 경쟁력이 없고 최종 목적이기 돼야 성공한다는 것이었다.

그는 한국정부가 허 거를 한다며 한국에도 투자할 용의가 있다며 J프로젝트 지구인 영 암·해남에 큰 관심을 보였다. 무안국제공항 이 있어 J프로젝트 조 구에 복합리조트를 지 성하면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은 물론 일본 관광객까지 끌어 모으는 훌륭한 ‘Destination’이 된다는 것이었다.

결국 그는 한국정부가 허가를 하지 않자 싱가포르에 투자를 해 마리나베이 샌즈를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키웠다.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. /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@kwangju.co.kr

| 光 叻 日 報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The Kwangju Ilbo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회장 <b>金鐘宅</b>  | 사장·발행·편집·인쇄인 <b>柳濟喆</b>          | 논설주간 <b>申港樂</b>                    | 편집국장 <b>李庚完</b>                    |
|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(일간)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-2 우편번호 501-711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표전화 222-8111·2200-551(지사·지국(구독신청·매달인내)) 광고문의 062-227-9600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편집국내<br>(대표 FAX 222-4918)  | 문화생활부 2200-661<br>여론재무부 2200-621 | 경영지원국 2200-515<br>(F A X 222-8005) | 민회홍보국 2200-541<br>(F A X 222-0195) |
| 편집부 2200-649   | 체육팀 2200-697                     | 광고이케팅국 227-9600                    | (F A X 2200-551)                   |
| 정경부 2200-612   | 사진부 2200-693                     | (F A X 227-9500)                   | (F A X 227-9500)                   |
| (대표 FAX 222-4918)  | 전자부 2200-697                     | 디자인 2200-536                       | 서울지사 02-773-9331                   |
| 사회부 2200-616   | 조사부 2200-571                     | 기획사업국 2200-555                     | (F A X 02-773-9335)                |
| (대표 FAX 222-4267)  | 전산팀 2200-685                     | ※구독료 월정 10,000원 1부 500원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